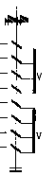


# 515 뜻없이 무를 품는



Capo=3rd  
J. Hay, 1891  
조음: 목조계 J=100  
LANGLOFFAN: 7.6.7.6.D.  
from D. Kyau's 'Hymnus A Thomas, 1865'  
Welsh Hymn Melody

1. 뜻 없이 무를 품는 그 강박한 자바르 게  
2. 약 없던 지 무를 품는 그 강박한 자바르 게

운 주 명 자에 정 말 겨 사 는 이 그 주 생 활 의 뜻 이 라  
추 한 자에 정 말 겨 사 는 이 그 주 생 활 의 뜻 이 라

우 해 리 의 의 면 음 밤 치 는 아 곳 주 독 수 기 리 게 달 듯 셔 이 서  
해 리 의 의 면 음 밤 치 는 아 곳 주 독 수 기 리 게 달 듯 셔 이 서

주 그 뜻 팔 로 이 이 될 아 지 주 시 어 다 외 치 의 가 가 사 나 나 니 아 멘  
주 그 뜻 팔 로 이 이 될 아 지 주 시 어 다 외 치 의 가 가 사 나 나 니 아 멘

# 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

1. 정 의 가 강 씨 를 물 뿌 리 며 평 지 나 가 온 들 수 난 불 치 세 립  
2. 정 는 모 가 강 씨 를 물 뿌 리 며 평 지 나 가 온 들 수 난 불 치 세 립

사랑 이 란 우 리 는 빛 처 앞 에 서 하나 님 주 신 생 명 모 دم 연 립 다 어  
모 란 우 리 는 빛 처 앞 에 서 하나 님 주 신 생 명 모 دم 연 립 다 어

회 년 을 향 해 함 게 가 는 길 주 의 약 속 곧 게 믿 으 며 일 곱  
회 년 을 향 해 함 게 가 는 길 주 의 약 속 곧 게 믿 으 며 일 곱

아 번 씩 일 곱 번 넘 어 겨 도 약 속 을 곧 게 믿 으 며  
아 번 씩 일 곱 번 넘 어 겨 도 약 속 을 곧 게 믿 으 며

|  |   |
|--|---|
| <p><b>12편</b><br/>                 1 주여! 도와 주소서.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으며 ○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<br/>                 2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, 입술을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○ 속다르고 꺾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.<br/>                 3 주여! 간사한 모든 입술 막아 주시고 ○ 제 자랑하는 모든 혀를 끊어 주소서.<br/>                 4 저들은 말합니다. “혀는 우리의 자랑, ○ 제 혀로 말하는데 누가 막으랴?”<br/>                 5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“없는 자 짓밟히고 가난한 자 신음하니, ○ 나 당장 일어서리라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리라.”<br/>                 6 주님의 말씀이야 진실된 말씀, ○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녹여 거른 순은과 같습니다.<br/>                 7 주여! 우리를 지켜 주소서. ○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소서.<br/>                 8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○ 더러운 자들이 판을칩니다.<br/>                 ●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○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.</p> | <p>4 원수들이 이겼다고 뿔을 내며, ○ 적들은 기뻐하며 날뛰 것입니다.<br/>                 5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믿습니다. ○ 이 몸 건져 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.<br/>                 6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○ 주님께 찬미드리리이다.<br/>                 7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오리니: 잡혀 간 당신 백성을 주께서 데려 오실 때, ○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리라.<br/>                 ●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○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.</p>   |
| <p><b>13편</b><br/>                 1 주여! 언제까지 나를, 영영 잊으시렵니까? ○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?<br/>                 2 밤낮없이 쓰라린 이 마음,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? ○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?<br/>                 3 주, 나의 하느님,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. ○ 죽음의 잠,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.</p>  | <p><b>14편</b><br/>                 1 어리석은 자들, 제 속으로 이르기를 ○ “하느님은 어디 있느냐?”말들 하면서,<br/>                 9 썩은 일,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○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.<br/>                 2 주여,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: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 있는지 ○ 하느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두루 살피지만<br/>                 3 모두들 판 길 찾아 벗어나서: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○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.<br/>                 4 언제나 깨달으랴. 저 악한들, ○ 떡 먹듯 내 백성 집어 삼키며, 주님은 부르지도 않는구나.<br/>                 5 하느님께서 옳게 사는 이들과 함께 계시니 ○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.<br/>                 6 비천한 자들 생각을, 너희가 비웃지만 ○ 주께서 그들을 감싸 주신다.<br/>                 ●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○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.</p> |

**복음서 마르코(마가)복음 14:1-11**

|  |  |
|--|--|
| <p>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.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'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'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. 그런데 그들은 "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, 명절에는 하지 말자" 하고 말하였다.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,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,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, 그 옥합을 깨뜨리고,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.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. "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? 이 향유는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,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!"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.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. "가만두어라. 왜 그를 괴롭히느냐?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.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,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, 그들을 도울 수 있다. 그러</p> | <p>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. 이 여자는,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.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,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온 세상 어디든지,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,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,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."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,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, 그들을 찾아갔다.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,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.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.</p> <p>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<br/>                 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</p> |
|--|--|